

의자캠페인 1년 성과 “형식적 의자 비치 안돼”

노동과세계 | 승인 2009.06.02 20:45

2일 서비스연맹 주최 ‘의자제공 실태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계산대에서 다른 매장 확대 주문



‘의자 캠페인 1년 의자제공 실태진단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할인매장, 마트 등 계산대 여성노동자들에게 우선 적용돼 시작된 ‘의자 캠페인’ 1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제공되는가 하면 업주나 점장의 눈치 때문에 잘 앉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강규혁 위원장)이 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130호 제4간담회의실에서 곽정숙(민주노동당), 김상희(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주최한 ‘의자 캠페인 1년, 의자제공 실태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윤근 노동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 16.7%만이 앉아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0%이상이 여전히 의자에 앉기가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제공된 의자들이 등받이 조건이 안 좋은데다 계산대 밑 다리공간이 협소해 여성노동자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의자 놓으라고 하니깐 ‘적당한 것 그냥 주면 된다’는 인식의 문제가 있다”면서 “인간공학적 조건에 합당한 의자를 제공하고 완전히 앉는 좌식 의자보다는 입좌식 의자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서비스연맹 노우정 조직부장은 “의자 1개를 놓더라도 제대로 놔야지 형식적인 의자는 필요없다”면서 “사용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계산대에만 국한된 의자 비치를 모든 매장에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여성연대 장수경 정책위원장은 “울산지역의 경우 노동지청에 면담을 통해 ‘전 대형매장, 백화점에 2009년 상반기내 의자 비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면서 “의자 놓기 사업을 통해 서비스노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고 일터와 삶터가 결합하는 여성운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성과를 전했다.

노동부에서 나온 김정연 근로자건강보호과 사무관은 “작년 예산 투입과 라디오, TV광고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의자가 놓이고 있지만 어떤 의자가 놓이는지, 얼마나 놓여야 하는지 등을 잘 몰랐다”면서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입좌식 의자에 대한 수요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교보문고 유통매장인 핫트렉스 이민욱 노조위원장은 “이마트에 가서 확인해봤지만 현장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상사의 ‘눈치’였다”며 “의자 놓는데 대한 비용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사용자들은 의자 놓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산업위생실장은 “의자캠페인이 마치 계산대 노동자만을 위한 것처럼 굳어질까 걱정스럽다”면서 “사용자들이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조가 함께 방안을 마련해서 사용자들을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화점 화장품매장 엘카코리아에서 나온 한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백화점 화장품매장 근무자들은 굽 5cm 이상의 구두를 신어야 하고 의자는 엄두도 못낸다”면서 “화장품대 쇼파나 의자는 소비자용이어서 사용자들이 이런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11@nodong.org